

## 서울인디애니페스트2024 수상작 리스트

부문	작품	감독
인디의 별	뉴-월드 관광	이문주
독립보행	나무의 집	김혜미
새벽비행	나의 정원에는 보푸레기	김봄
심사위원 특별상	엔터티	정휘빈
초록이상	The Popstar Water Deer and I	이상화
KIAFA 특별상	엄마의 집	김창수
음악/사운드 부문상	(D)Infinity	오딘 (감독:김태완)
축제의 별	고양이가 되었다	이희영
랜선비행상	하수구	김성은
랜선비행 관객상	Macguffin	양시문
아시아로 대상 '아시아의 빛'	몬순 블루	엘리스 카인 찬, 제이 후 이킷 웡
아시아로 심사위원 특별상	휴게소의 밤	사키 무라모토
아시아로 관객상	휴게소의 밤	사키 무라모토
미리내로 대상 '미리내의 별'	술타나의 꿈	이사벨 에르게라
미리내로 관객상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	허범욱
관객심사단상	반+짱	김서현

서울인디애니페스트2024 수상작 발표 및 심사평  
Seoul Indie-AniFest2024 Award Announcement

[독립보행/새벽비행 심사총평]

올해는 20주년에 걸맞게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작가들과 신인 작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해였습니다. 작품의 수준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즐겁지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완성도, 작가의 메시지 그리고 독립애니메이션이 갖는 의미까지 포함하여 많은 요소를 가지고 고민을 거듭하여 심사를 하였고 오랜 토론 끝에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모든 상영작 감독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함께 하는 동지이자 친구로서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장형윤)

[Independent Walk/First Flight Jury's Comment]

This year, marking the 20th anniversary, saw an exceptional convergence of works from both seasoned creators and fresh new talent. The level of quality has reached unprecedented heights, surpassing anything we've seen in previous years. The jury was privileged yet faced a real challenge in making some tough choices.

We deliberated extensively on many factors, from the technical mastery of the animation to the director's message and the significance of independent animation. After long discussions, we finally selected the winners. We extend our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directors for presenting such remarkable works. As fellow animators and friends in this journey, we offer our heartfelt appreciation. (CHANG Hyung-yun)

- 대상 '인디의 별' Grand Prize 'Star of Indie'

[뉴-월드 관광 New-world Tour] 이문주 LEE Moonjoo

감독은 이제 시선을 자기 안으로 향한다.

성장해 온 과정들, 흔적들, 허기와 냄새들, 발가락 사이에서 바람맞은 머릿결이 부풀었던 순간들까지.

우리 뇌와 내장이 내밀하게 호응하지 않던가. 잠깐의 멀미는 당연한 애교...

집적되었던 잠재에너지들을 터뜨린 이 작품은 우리 영화제 '스물' 성인식에 "이영차" 의미를 새겨준다.

더 이상 바깥으로 '팽창'만 할 게 아니라, 안으로도 자기 전개와 확장을 찾아가자고.

엄마가 준, 알고 보면 아빠도 여유 있게 펼친 그 동력을. (이용배)

The director now shifts the focus inward. The journey of growth, the traces left behind, the hunger, the scents, even those fleeting moments when the wind ruffled hair between our toes—don't our minds and bodies intimately react to such memories? A brief sense of dizziness is merely a natural response. This film, brimming with latent energy,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n the 20th anniversary of our festival, marking the moment with a resounding 'Yo-Ho!' It is no longer about outward expansion, but about turning inward to discover new depth of personal growth. Ultimately, the energy we carry stems from both our mother's nurturing and our father's strength. (LEE Yongbae)

- 독립보행상 Prize for Independent Walk

[나무의 집 The Tree's Home] 김혜미 KIM Hyemi

우리는 자연에서 시작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안에서 피어나는 여성의 존재를 나무처럼 따듯하게 그려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 속에는 늘 자연과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톱질과 대패질로 잘려 나가는 나무는 잔인함보다는 묵직한 여운으로 다가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만듭니다.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상준)

We emerge from nature and eventually return to it. This story gently portrays the presence of women, growing like trees within that cycle. It reminds us that the joy we feel has always carried the imprint of nature and the nurturing touch of a mother. The trees, shaped through sawing and planing, don't convey cruelty but instead leave a lasting impression, inviting us to reconsider the profound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ity. It was a truly moving and reflective story.

(KIM Sangjoon)

- 새벽비행상 Prize for First Flight

[나의 정원에는 보푸레기 A Tiny Little Lint in My Garden] 김봄 KIM Bom

차곡차곡 쌓아 올린 나무 블록처럼, 이 이야기는 저의 감정을 천천히 그리고 성실하게 쌓아 올립니다.

마치 퇴근길에 마주한 황금빛 가을 햇살처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먼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몽클함이 가슴을 적십니다.

세상에 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와 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천천히 쌓아온 이야기가 하나의 장면으로 조용히 응축되어 깊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뒤, 이야기의 여운은 더욱 깊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김상준)

Like stacking wooden blocks one by one, this story slowly and earnestly builds up emotional layers. As the story progresses, it feels like stepping into the warm glow of an autumn sunset after a long day, stirring a gentle nostalgia deep within. The sight of a tired father returning home, greeted by children who resemble him, distills the entire narrative into a single, profound moment, allowing emotions to flow naturally. Once that moment passes, the emotional resonance lingers even more deeply, leaving a lasting, heartfelt impression. (KIM Sangjoon)

- 심사위원 특별상 Jury Special Prize

[엔터티 Entity] 정휘빈 CHUNG Huibin

이 작품은 가벼움과 용감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살인마와 사투를 벌이며 온갖 변태를 만나고 가난과도 싸워야 합니다.

스릴러의 장르를 기본으로 하는 이 작품은 뛰어난 애니메이션과 함께 디스토피아 미래 사회, 가벼운 섹스 코메디의 요소를, 집중력을 가지고 잘 표현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장형윤)

This film masterfully balances both a sense of lightness and boldness. The protagonist faces off

against a killer, encounters all sorts of perverts, and grapples with poverty. While rooted in the thriller genre, this film stands out with its sharp animation and its depiction of a dystopian future, seamlessly blending moments of light-hearted sexual humor with impressive focus and creativity. (CHANG Hyung-yun)

- 초록이상 Special Prize for Debut Film

[The Popstar Water Deer and I 고라니 아이돌과 나] 이상화 LEE Sasha

이 작품은, 주인공의 뒀다 가라앉았다 하는 감정과 집착을 그리기 위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상쾌한 리듬감으로 관객을 작품에 몰입하게 합니다.

어두우면서도 밝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 작품을 초록이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사리나 니헤이)

This film brilliantly employs a range of animation techniques to capture the protagonist's emotional highs, lows, and and obsessions, engaging the audience with its refreshing rhythm. It explores a story that is both dark and bright, with passionate energy and daring choices. (Sarina NIHEI)

- KIAFA 특별상 KIAFA Special Prize

[엄마의 집 Mother's House] 김창수 KIM Changsoo

독립단편을 집요하게 제작해 오다가 어느새 중년.

이런 도전들이 고맙게도 매번 KIAFA의 독립 정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생한 대화로, 상징화된 캐릭터로 살아나면서 감독의 시선이 포착하는 지점들은 충격이자 또 다른 생성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버틴 감독 개인의 삶이 한적한 시골길 삼거리,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자동차가 백라이트만 길게 깜빡일 때, 관객들도 같은 호흡으로 작품 전체를 반추했으리라. (이용배)

After years of making independent short films, the director has now reached middle age. These efforts have repeatedly helped elevate KIAFA's spirit of independence. When serious social issues are brought to life through vivid dialogue and symbolic characters, the moments the director captures are not just shocking but feel like a whole new creation. The director, who even earned a caregiving certification to keep things going, shows a quiet country crossroad, with a car blinking its tail lights, unsure of where to go. In that moment, the audience must have been reflecting on the entire film in a similar way." (LEE Yongbae)

- 음악/사운드부문 특별상 Special Prize for Music/Sound

[(D)Infinity (디)인피니티] 오딘 음악감독 oddeen Music Director

이 작품의 사운드와 음악은 이미지를 이해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구체로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역할이 단순히 내러티브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소리의 질감. 공간과 움직임. 크기. 그

모든 것을 통해 작품 자체가 되게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돋보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많은 해답 중에 '몰입'의 측면에서 재밌는 답변이라고 생각되어 이 작품을 선택합니다. (임미현)

The sound and music in this animation transcend mere accompaniment to the visuals—they actively immerse the viewers in the experience. Rather than simply supporting the narrative, the music enriches the film through its use of sound texture, space, movement, and scale. These elements come together, making the music an integral part of the work itself. The director's dedication and creative effort are evident in this approach. By drawing the audience into immersion, the film offers a compelling answer to the question: 'What defines good music in animation?' (LIM Mihyun)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고양이가 되었다 | Became a Cat] 이희영 LEE Heeyoung

### [랜선비행 총평]

개성이 넘치고 다양한 형식의 작품 16편을 접하면서 저는 꿈꿔왔던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도구의 발전이 창작의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좋은 웹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마치 처음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나뭇가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가올 큰 태풍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웹이라는 열려있는 시공간에서 나이, 성별,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누구와도 쉽게 소통하며 즐거움과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이란 무엇인가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작품을 선보이신 감독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다히)

### [Web Animation Jury's Comment]

Watching the 16 diverse and unique works, we glimpsed the new possibilities in animation that we had long envisioned. We also realized that advancements in tools can unlock a whole new realm of creativity. Reflecting on the question, 'What makes a good web animation?' felt like observing tree branches swaying in the breeze and trying to predict the arrival of a great storm. In the end, we acknowledged that drawing a clear distinction is impossible. Even so, we pondered what kind of work, in the open space of the web, could transcend age, gender, race, and culture to communicate easily and bring joy and resonance to everyone. Finally, we extend our respect and gratitude to the directors for sharing these invaluable works. (JEONG Da-hee)

- 랜선비행상 Prize for the Best Web Animation

[하수구 Drain] 김성은 KIM Soungun

작품성과 더불어 '랜선비행 부문'에 걸맞은 작품인지, 지속적인 연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수상작을 결정하였습니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들이 엮어내는 스토리와 유머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세로 영상 형식을 취하고,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으로 유머를 전달하는 이 작품은 도달률이 높은 숏폼 콘텐츠 영역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돋보인다는 점도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가 보여줄 유쾌한 여정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박다미)

We evaluated not only the quality of the work but also its suitability for the 'Web Animation' category and its potential for web series. After much deliberation, we made our decision. The story, crafted by cute and witty characters, was genuinely impressive. Presented boldly in a vertical format, the film efficiently delivers humor in a short running time, without unnecessary elements. We believe it will have a strong presence on short-form content platforms. Another reason we selected this work as a winner is its ability to transcend language barriers and easily connect with a global audience. We eagerly anticipate the delightful journey this series will take in the future.

(PARK Dami)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Macguffin 맥거핀] 양시문 YANG Seemoon

## [아시아로 총평]

'아시아로' 경쟁부문을 신설해 상영한 지 벌써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단은 심사를 진행하며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독립애니메이션영화제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로 작품마다 매우 다양한 문화, 사회에 처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각자의 컬러와 형상으로 빛어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됨과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기 다른 주제와 방식의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예년보다 줄어든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 진정성으로 삶에 끌어들이는 힘과 애니메이션적 연출력을 통한 대중적 공감 등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며 아쉽게도 더 많은 작품을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아시아로'에 상영한 모든 작품의 제작자, 감독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작품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울인디애니페스트에 감사를 드립니다.(나기용)

## [ASIA ROAD Jury's Comment]

This is the ninth year since we established the Asia Road competition section. As we reviewed this year's selections, it became clear once again that this festival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cornerstone for independent animation across Asia. Each film reflects the diverse cultures and social realities of the individuals, revealing their identities through vibrant colors and forms. Yet within this diversity, we discovered a shared thread that connects our past, present, and future, and a sense of hope woven through the fabric of everyday life.

Selecting the winners was particularly difficult this year, given the quality and wide-ranging themes

and approaches. We evaluated not only the filmmakers' engagement with societal issues but also their ability to pull the audience into their narratives with authenticity and animation techniques. It was unfortunate that we couldn't recognize more works.

We'd like to take this moment to congratulate all the producers and directors and extend our gratitude to the Seoul Indie-AniFest for providing such an invaluable space for these films to meet their audience. (NA Giyong)

- 아시아로 대상 '아시아의 빛' Grand Prize 'Light of Asia'

[몬순 블루 Monsoon Blue] Ellis Ka-yin CHAN, Jay Hiu-kit WONG 엘리스 카인 찬, 제이 후이킷 웡

이 작품은 현실의 우울함을 감당하는 주인공과 그 인물이 추억하는 과거의 대비를 통해 회복될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작품이었습니다.

적절한 플래시백의 배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주인공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게 하며 플래시백 장면의 청량한 색감은 답답함을 느끼는 주인공에게 몰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환기를 해주며 주인공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레이션과 대화를 곱씹을수록 감독들의 따뜻함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분명 돌아올 청량할 미래를 응원하는 이 작품에 '아시아의 빛'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수진)

This film is a heartwarming work that encourages the protagonist's eventual recovery from present bleakness by contrasting it with memories of the past. The well-placed flashbacks aroused curiosity about the protagonist's journey, while the vibrant color palette of these scenes provided a refreshing contrast, allowing viewers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protagonist's emotions. The more we reflected on the narration and dialogue, the more the directors' warmth resonated from within. For those of us who cherish pure-heartedness, we wish to award this work the 'Light of Asia' for its message of hope for a bright and refreshing future that is surely on its way. (MOON Sujin)

- 아시아로 심사위원 특별상 Jury Special Prize

[휴게소의 밤 A Night at the Rest Area] Saki MURAMOTO 사키 무라모토

밤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조그마한 손짓과 세세한 몸짓 하나하나로 겨울 편의점에서 사 먹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같은 매우 따뜻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최소한의 움직임과 사운드, 하지만 절묘한 편집과 유머 코드로 관객의 웃음을 불러일으키지요.

작품 속 캐릭터들은 흠칫, 관객석에 앉은 제 엉덩이는 뒹칫! 작품 속 움직임 반경은 작으나 마음은 크게 울렸습니다. (임채린)

The night is dark and quiet, yet this film, through every small gesture and subtle movement, creates a scene as warm as a steaming bun from a convenience store in the middle of winter. With minimal movement and sound until the final scene, yet with sharp editing and clever humor, it draws laughter from the audience. When the characters in the film flinch, I find myself tapping along! Though the physical action in the film is minimal, its emotional impact is profound.

(IM Chaerin)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휴게소의 밤 A Night at the Rest Area] Saki MURAMOTO 사키 무라모토

### [미리내로 총평]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몸을 움직여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는 건 오롯이 한 창작자의 몫입니다.

그 몫을 눈부시게 해낸 세 작품을 만나 고마웠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의 노고와 고민을 알기에 심사를 해야하는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특히나 엔딩 크레딧 곳곳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감독님들의 이름은 기나긴 작업 기간 동안 어떤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며 현실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다룬 스타나의 꿈,

동물권과 인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준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

원작/각본/음악/애니메이션을 도맡아 초현실적이며 실험적인 시도를 선보인 암리타의 향연까지, 미리내로의 세 작품 모두 각각의 오리지널리티와 색깔이 분명해 무엇이 더 좋다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인디애니페스트라는 축제의 장에서 서로 다른 표정을 짓는 세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부디, 다른 곳 또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보람)

### [MIRINAE ROAD Jury's Comment]

Anyone can dream, but it is solely the creator's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 and bring those dreams to completion. We are grateful to have encountered the three works that achieved this so remarkably. Aware of the immense challenges and considerations involved in producing a feature-length animation, we approach the judging process with a deep sense of respect. The repeated appearance of the directors' names in the end credits is a testament to the dedication and effort invested over the lengthy production period.

From Sultana's Dream, which follows women of different nationalities as they traverse time and space in search of a freedom difficult to attain in reality, to Pig That Survived Foot-and-Mouth Disease, which introduced a new realm of imagination at the intersection of animal and human rights, and finally to Feast of Amrita, a surreal and experimental work where the director undertook everything from the original concept to the script, music, and animation—each of these works showcases a unique originality and style, making it impossible to determine which is better.

It was a pleasure to witness such diverse expressions in these three feature-length animations at the Seoul Indie-AniFest. We sincerely hope to encounter them again, somewhere, someday.

(KIM Boram)

- 미리내로 대상 '미리내의 별' Grand Prize 'Star of Mirinae'

[스타나의 꿈 Sultana's Dream] Isabel HERGUERA 이사벨 에르게라

우리는 꿈과 현실, 그리고 관계와 정체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고민을 반영하며,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의 자유로움을 탁월하게 활용해 시대를 뛰어넘은 꿈의 세계와 사회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그려냅니다. 이 작품의 여정은 완벽하지 않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은 우리에게 여전히 탐험해야 할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초월하여 애니메이션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은아)

We live in a time where dreams, reality, relationships, and identity are intricately intertwined. This film reflects these contemporary concerns and effectively portrays a world of dreams and social diversity by transcending time through the creative freedom of animation. While the journey it presents is not perfect and does not offer clear answers, its imperfections leave us with many questions yet to explore. It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feature-length animation, demonstrating the expressive potential that animation can achieve. (YEO Eun-a)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 PIG THAT SURVIVED FOOT-AND-MOUTH DISEASE] 허범욱 HUR Bumwook

### [관객심사단상]

- 관객심사단상 Prize of Public Jury

[반+짱 BAN+ZZAK] 김서현 KIM Seohyeon

이 작품은 윗트 있는 제목과 그에 어울리는 독특한 분위기로 관객에게 우주에 있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자신의 반+짱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의 여정은 혼란스러우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서울인디애니페스트 20회를 기념하여, 우리 관객심사단은 독립·실험·열정·비전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관객심사단 김다예)

With its witty title and unique vibe, this film gives the audience a mesmerizing out-of-this-world feeling, like floating in space. The protagonist's journey to find their Ban+Zzak is chaotic yet beautiful.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Seoul Indie-AniFest, our audience jury picked this film because it really stands for independence, experimentation, passion, and vision.

(KIM Daye, Audience Jury)